

韓 国 語

(解答番号 ~)

第 1 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32)

A 次の問い(問 1・問 2)の文の下線部㉑・㉒を、例に示したようにハングルで発音表記する場合、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例 저기 ㉑있는 것이 질도 ㉒좋고 값도 싸요.
發音表記 ㉑ [인느] — ㉒ [조코]

問 1 ㉑전철역까지 마중 ㉒못 오신대요.

- ① ㉑ [전철력] — ㉒ [모도신대요]
- ② ㉑ [전처력] — ㉒ [모소신대요]
- ③ ㉑ [전철력] — ㉒ [모소신대요]
- ④ ㉑ [전처력] — ㉒ [모도신대요]

問 2 ㉑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㉒엄격한 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

- ① ㉑ [本格찌긴] — ㉒ [엄겨칸]
- ② ㉑ [本格찌긴] — ㉒ [엄껴칸]
- ③ ㉑ [本格찌긴] — ㉒ [엄겨칸]
- ④ ㉑ [本格찌긴] — ㉒ [엄겨칸]

B 次の問い(問1・問2)の文において、四つの空欄のうち三つには同じ文字が一つずつ入る。空欄に入る文字が他の三つと異なる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 ① 인터뷰가 잡에 실렸어요.
- ② 낙볶음 하나 주세요.
- ③ 달리기에서 꼴를 했어요.
- ④ 상처에 딱가 생겼어요.

問2

- ① 문을 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 ② 경제 발전이 두러진 한 해였어요.
- ③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리면 안 돼요.
- ④ 시간 있으니까 서르지 마세요.

韓国語

C 次の問い(問1～4)において、a～cは韓国語の単語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下線部をハングルで表記した場合(例：長 장)の異同について正しく述べた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なお、()内は日本の常用漢字の字体である。

問1

5

a 愼重(愼重) b 眞實(眞実) c 重鎭(重鎭)

-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2

6

a 活字 b 分割 c 圓滑(円滑)

-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3

7

a 放浪 b 豊年(豊年) c 包容(包容)

-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 4

8

a 占領

b 染色

c 先導(先導)

① a と b が同じ

② a と c が同じ

③ b と c 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韓国語

第2問 次の問い(A～E)に答えよ。(配点 80)

A 次の問い(問1・問2)の(a)・(b)に共通して入るもの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9

- ・ 추우니까 이불 (a) 자라.
- ・ 냄비 뚜껑을 (b) 5분 정도 끓이세요.

① 깔고 ② 하고 ③ 덮고 ④ 닫고

問2

10

- ・ 목이 (a) 물부터 달라고 했다.
- ・ 이 옷은 때가 잘 (b) 자주 빨아야 돼.

① 타서 ② 껴서 ③ 묻어서 ④ 말라서

B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ア～ウのように単語の形を変えたとき、その正誤の組合せとして正しい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⑧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11

ア 눅다 → 누우면

イ 꺾다 → 꺾으면

ウ 힘겹다 → 힘겨우면

① 아 正 이 正 우 正

② 아 正 이 正 우 誤

③ 아 正 이 誤 우 正

④ 아 正 이 誤 우 誤

⑤ 아 誤 이 正 우 正

⑥ 아 誤 이 正 우 誤

⑦ 아 誤 이 誤 우 正

⑧ 아 誤 이 誤 우 誤

問2 12

ア 구르다 → 구르는

イ 말다 → 마는

ウ 드물다 → 드무는

① 아 正 이 正 우 正

② 아 正 이 正 우 誤

③ 아 正 이 誤 우 正

④ 아 正 이 誤 우 誤

⑤ 아 誤 이 正 우 正

⑥ 아 誤 이 正 우 誤

⑦ 아 誤 이 誤 우 正

⑧ 아 誤 이 誤 우 誤

韓国語

C 次の問い(問1～8)の ～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노래를 마친 가수는 팬들 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 ① 을 ② 에 ③ 에게 ④ 로

問2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을 벌 없습시다.

- ① 기분이 ② 심정이 ③ 낮이 ④ 얼굴이

問3 할 거면 열심히 해야지.

- ① 하필 ② 오직 ③ 한창 ④ 이왕

問4 비가 그쳤으니까 우산은 가방에 넣어라.

- ① 줄여서 ② 접어서 ③ 달아서 ④ 꺾어서

問5 애는 손끝 하나 안 하고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네.

- ① 깜짝 ② 꾸벅 ③ 슬쩍 ④ 까딱

問6 그 사람은 그걸 버렸지 남한테 주지는 않을걸.

- ① 버리고 ② 버리면 ③ 버려서 ④ 버리니까

問 7 열심히 19 아직까지 빈둥거리네.

- ① 일하자고 ② 일하니까 ③ 일한다더니 ④ 일하노라고

問 8 20 이라고 그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될 거야.

- ① 호시탐탐 ② 독불장군 ③ 팔방미인 ④ 대기만성

韓国語

D 次の問い(問1~4)において、下線部の語句と入れ替えたとき、文意が最も近くなる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원장님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실 겁니다. 21

- ① 달래실 ② 배웅하실 ③ 돌보실 ④ 가르치실

問2 그 문제는 살살이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야 한다. 22

- ① 철저히 ② 신속히 ③ 공정하게 ④ 각별하게

問3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23

- ① 불평불만을 감출 ② 이것저것 음식을 마련할
③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할 ④ 음식 솜씨를 자랑할

問4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4

- ① 참견을 하니까 ② 판짓을 하니까
③ 어리광을 피우니까 ④ 따지고 드니까

E 次の問い(問1～4)の下線部の日本語に相当する韓国語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いい年をして, 遊んでばかりいてどうする気?

25 놀기만 하면 어쩔 생각이야?

- ① 나이는 점점 들어 가는데 ② 좋은 나이를 해서
 ③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④ 이렇게 젊은 나이에

問2 それは学生にあるまじき行為だと言えるでしょう。

그것은 26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① 학생이라면 당연한 ② 학생밖에 안 하는
 ③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④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問3 彼はもう帰れと言わんばかりに背を向けた。

그는 그만 27 등을 돌렸다.

- ① 가라면서 ② 가라는 듯이
 ③ 가라는 말은 못 하고 ④ 가라고 하려고

問4 断らずに行こうものなら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よ。

28 큰일 날 거예요.

- ① 거절하지 않고 가자고 하면 ② 아무 말 안 하고 가 버리면
 ③ 허가도 안 받고 가자고 하면 ④ 말을 안 듣고 가 버리면

韓国語

第3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40)

A 次の問い(問1～4)の ～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A: 너,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더위라도 먹은 거야?

B: 아니, .

A: 뭔데 그래? 속 시원하게 털어놔 봐.

- ① 며칠 전부터 좀 걸리는 게 있어서
- ② 바닷가에 다녀왔더니 너무 땀어
- ③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이야
- ④ 요즘 찬 걸 많이 먹었더니 배탈이 났나 봐

問2 A: 왜 가만히 있었어? 한마디 해야지.

B: .

A: 하긴 그래. 입만 아프지.

- ①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 왔거든.
- ②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 ③ 개가 얘기한다고 듣는 애가 아니잖아.
- ④ 맞는 말만 하던데.

問 3 A :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B : 이 버튼을 5초 정도 누르고 있어야 해.

A : 나 원 참. 31 괜히 헛고생만 했네.

- ① 나도 그렇게 했는데.
- ② 그런 줄 알았다니까.
- ③ 나도 알고 있었는데.
- ④ 그런 줄도 모르고.

問 4 A : 야, 휴대폰 뚫어지겠다.

B : 사람이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바로바로 줘야 하는 거 아냐?

A : 32

B : 그런가? 그럼 좀 기다려 볼까?

- ① 미안, 너무 바빠서 그랬어.
- ② 너 문자 잘못 보낸 거 아냐?
- ③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괜히 그러겠니?
- ④ 문자 보내기 무섭게 답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

韓国語

B 次の会話文を読み, またイラストを見て, 下の問い(問1~3)に答えよ。

< 학교 신문 동아리 방에서 >

기훈 : 어제 인터뷰 갔다 온다고 하더니, 어땠어?

지혜 : 인터뷰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미영이가 좀 늦기는 했지만.

기훈 : 미영이는 어때? 잘 하니?

지혜 : 33 미영이가 관심이 많았는지 준비도 많이 했고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기훈 : 너네 팀 특집이 '재미있는 직업'이었지? 아트테라피스트라는 건 좀 낯선데.

지혜 : 예술로 심리 치료를 하는 건데 요즘 화제인가 봐. 어제 만난 분은 미술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춤을 이용한 치료도 있다고 하더라고. 너넨 어때?



기훈 : 우린 운동부를 들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야구부에 다녀왔어. 올해 분위기가 꽤 좋더라고. 이번엔 전국 대회에 나갈 거라고 각오가 대단하던데.

지혜 : 34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 올가을엔 응원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기훈 : 그렇게 말이야. 이번엔 한번 기대해도 좋을 거 같아. 참, 엠티* 준비는 어때? 준비할 게 좀 많지 않아?

지혜 : 그래서 우린 다음 주부터 댄스 연습에 들어가려고.

기훈 : 와! 벌써 시작하는 거야?

지혜 : 8월 금방이야. 우린 1학년 친구들이 아주 적극적이야.

기훈 : 하하하. 역시 미영이가 있어서 그런가? 개는 취재든 뭐든 적극적이라 좋아.



*엠티 : 合宿

韓国語

問 1 33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꼼꼼하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려고 해.
- ② 아이디어는 많은데 쓸 만한 게 별로 없어.
- ③ 성격은 밝은데 좀 엉뚱해.
- ④ 게으르기는 한데 취재에는 적극적인 편이야.

問 2 34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아무리 그래도
- ② 아니나 다를까
- ③ 아쉬운 대로
- ④ 아닌 게 아니라

問 3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5

- ① 지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인터뷰가 재미있게 진행됐다.
- ② 아트테라피스트는 색깔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 ③ 야구부는 훈련을 열심히 한 덕분에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다.
- ④ 여름에 가는 엠티에서는 같은 학년끼리 장기 자랑을 할 예정이다.

(下書き用紙)

韓国語の試験問題は次に続く。

韓國語

C 次の会話文を読み, 下の問い(問1~3)に答えよ。

은지 : 애들아. 내가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워 봤는데 좀 들어 봐.

수연 : 그래? 어디 얘기해 봐.

은지 : 응, 첫날에는 산이랑 바다랑 목장이랑 폭포를 볼 거야.

주하 : 첫날부터 되게 많이 돌아다닌다.

은지 : < 아 > 아침 7시 40분 비행기를 타면 9시 반에는 도착하거든.
2박 3일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다녀야 해.

수연 : 공항에서 차를 빌릴 거야? 운전은 주하랑 내가 할 거지?

은지 : 응,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먼저 목장에 가자. 거기서 파는 아이스크림이 맛있대. 그건 꼭 먹어야 돼. 그리고 산에 가는 거야. 산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다니까 거기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바다로 가자.

주하 : 근데 목장은 괜찮을 거 같은데 산에도 볼 게 있어?

수연 : < 이 > 거기 국립 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만 사는 야생 동물을 볼 수 있거든. 오전에 가서 천천히 돌아보자.

주하 : 그래? 나도 좀 찾아봤는데, 공항에서 북쪽으로 가면 유명한 호수가 있대. 난 산이나 목장보다 호수나 바다가 더 좋은데. 만약에 바다에 먼저 간다면 그 바닷가 근처에 해산물이 맛있는 집이 있다니까 점심은 거기서 먹고.

수연 : < 우 > 그 시간에 점심 먹게? 너무 이른데. 그리고 호수는 공항에서 굉장히 멀고 산이나 바다랑도 반대쪽이잖아.

주하 : 그러면 호수는 포기해야겠다. 바다를 먼저 가면 점심 먹기에는 이르다고 하는데 바다에서 할 게 많아. 배도 타고 근처에 있는 폭포도 보고……. 다시 바닷가로 가서 점심 먹으면 돼.

은지 : 그럼 목장하고 산은 오후에 가자고? 수연이 말대로 국립 공원은 일찍 가야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거든. 오후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

수연 : 맞아, 맞아. 점심은 목장 가기 전에 먹고 오후엔 목장이랑 바다랑 폭포를 보자.

問 1 < ア > ~ < ウ > に次の A ~ C を入れる場合, 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
 適当なものを, 下の①~⑥のうちから一つ選べ。 36

A : 애가 너무 모르네.

B : 다 돌아다녀도 시간은 충분할 거야.

C : 차로 가면 공항에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① 아 : A 이 : B 우 : C

② 아 : A 이 : C 우 : B

③ 아 : B 이 : A 우 : C

④ 아 : B 이 : C 우 : A

⑤ 아 : C 이 : A 우 : B

⑥ 아 : C 이 : B 우 : A

問 2 ウンジとスヨンが考えるスケジュールは次の A ~ D のうちどれか。その組合
 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7

A : 바다 → 점심 → 국립 공원

B : 목장 → 국립 공원 → 점심

C : 국립 공원 → 점심 → 목장

D : 국립 공원 → 목장 → 점심

	은지	수연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韓国語

問 3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8

- ① 차는 공항에서 빌리고 운전은 주하와 수연이 할 것이다.
- ② 주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③ 국립 공원은 빨리 가야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다.
- ④ 은지는 폭포에 가자고 한 수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下書き用紙)

韓国語の試験問題は次に続く。

第4問 次の案内文を読み, 下の問い(問1・問2)に答えよ。(配点 8)

여행 작가 프로그램 10기 수강생 모집

여행과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을 통해 여행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인 원 : 15명 정도
- 기 간 : 4월 10일(수)~5월 29일(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총 8회
5월 초 1박 2일의 실습 여행
- 장 소 : 한국신문사 2층 회의실
- 내 용 : 여행 기획안 작성, 사진 촬영의 기초, 사진 편집,
실습 여행, 여행 에세이 쓰기
- 준비물 :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카메라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 사용 가능)
- 수강료 : 42만 원(실습 여행비 포함)

모집 기간은 3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은 02-1234-5678 로 문의해 주십시오.

問 1 次の文章は、プログラムの内容を企画した人が上司に送ったメールの一部である。案内文に反映されていない企画内容はどれか。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9

이번 여행 작가 프로그램의 내용인데요. 실습 여행 전에 ① 사진 찍기의 기초와 편집 기술을 넣고, 실습 여행은 ② 참가자들이 몇 가지 여행 기획안을 만들면 그것을 검토해 여행지를 정하려고 합니다. ③ 일정은 5월 초에 3일부터 4일까지나 4일부터 5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④ 실습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 에세이를 써서 출판하는 것도 넣으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問 2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0

- ① 이 프로그램은 격주 수요일 한국신문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 ② 카메라가 없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된다.
- ③ 실습 여행비는 여행을 가기 전에 별도로 내야 한다.
- ④ 모집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이 안 모일 경우 2차 모집이 있다.

韓国語

第5問 次の文章を読み、下の問い(問1～5)に答えよ。(配点 20)

지금부터 50년 전, 대학 시절 일이다. 그때 나는 대학 근처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서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서클에서 서오릉으로* 봄꽃놀이를 간 적이 있다.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버스 종점에서 내려 한 시간 정도 걸어야 했다. 우리는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우리 일행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물통이며 간식거리가 들어 있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분명히 나들이 길인 것이었다. < A >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이 봉사 활동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 왠지 나는 이 아이들의 무리에 끼어 오늘 하루를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들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첫 대화’를 무사히 마치는 일이다. < B > 그러므로 내가 꼬마들에게 던지는 첫마디는 반드시 대답을 구하는, 그리고 대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애, 너 이름이 뭐냐?”라는 첫마디를 던진다면 그들로서는 우선 대답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어서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C >

나는 문득 생각난 듯이 꼬마들 쪽으로 돌아서며 “42” 하고 첫마디를 건넸다. 이 물음은 그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질문이다. ‘예’ 또는 ‘아니요’로 충분한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질문이었다. < D >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A)”가 아니라 “(B)”였다. 뿐이라. “(C)”

그러나 그 다음 대목에서 뜻밖에 얘기가 막혀 버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버스 종점에서 반쯤 온 셈인가?”

“아니요, 반도 채 못 왔어요.”

“너희들은 서오릉 근처에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요, 문화동에*** 살아요.”

“그럼 지금 문화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야?”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려구.”

“에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여 일단 대화의 입구를 열어 놓았다. 이제 이 꼬마들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아인슈타인 같은 위인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 주면서 우리는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서오릉에 닿았다. 일단 나는 서클 일행 속으로 돌아왔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자유 시간에는 다시 꼬마들을 만나 씨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으며 한참을 놀고 헤어졌다.

서클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꼬마들이 찾아왔다. 벌써 집으로 돌아갈 차림이다. 그들은 사진이 나오면 한 장 보내 달라며 주소를 적어준 뒤 한 묶음의 진달래꽃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초등학생답게 일제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④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서 가장 밝은 진달래꽃빛은 이때 받았던 진달래꽃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 서울에 돌아가면 나는 서오릉으로 봄철의 외로운 산책을 가고 싶다. 고운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

* 서오릉(西五陵) : 韓國京畿道高陽市にある朝鮮王朝の王陵群

** 남루하다 : みすぼらしい

*** 문화동(文化洞) : 1970年までソウル市にあった行政区域名

韓国語

問 1 次の文を本文中に入れるとすれば、< ア >~< エ >のうちどこがよいか。最も適当なものを、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1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서로의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몇 년씩이나 당겨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① < 아 > ② < 이 > ③ < 우 > ④ < 에 >

問 2 42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너희들도 서오릉에 가는 길이니?
- ② 서오릉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 ③ 무거운 것 같은데 내가 짐을 좀 들어 줄까?
- ④ 이 길이 서오릉 가는 길이 틀림없지?

問 3 (A)~(C)に次のa~cを入れる場合、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下の①~⑥のうちから一つ選べ。 43

- a 네, 맞아요!
- b 우리도 서오릉 가는 길이에요!
- c 네. 이쪽으로 곧장 가면 서오릉이에요.

- ① A : a B : b C : c
- ② A : a B : c C : b
- ③ A : b B : a C : c
- ④ A : b B : c C : a
- ⑤ A : c B : a C : b
- ⑥ A : c B : b C : a

問 4 下線部㉔のように考えた理由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4

- ① 산에서 방금 따 온 진달래꽃이었기 때문에
- ② 아이들과 놀면서 함께 딴 꽃이었기 때문에
- ③ 제대로 물들기 전의 밝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 ④ 진달래꽃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5

- ① 필자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 ② 필자는 아이들이 서오릉 근처에 살고 있는 줄 몰랐다.
- ③ 필자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지냈다.
- ④ 필자는 아이들과 함께 진달래꽃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韓国語

第6問 次の文章を読み、下の問い(問1～5)に答えよ。なお、文章の左にある(1)～(6)は段落の番号を表している。(配点 20)

- (1) 서울의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어 보자는 노래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노래가 크게 히트 했던 30~40년 전, 사과나무를 심었다 한들 가을에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을까. 사과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가루를 옮겨다 줄 꿀벌이 도심에서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인 명동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어떨까. 최근 도심 곳곳에서 양봉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명동에서 수확한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 (2) 꿀벌을 기르는 사람들은 명동뿐 아니라 도쿄 도심인 긴자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양봉 사업을 벌여 온 결과, 최근엔 긴자의 빌딩 옥상에서 벌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꿀벌들이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심에서 만들어진 꿀은 도시에 빌딩을 소유한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꿀맥주, 벌꿀 칵테일 등으로 변신하여 도심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긴자 꿀’ 이름을 내건 케이크와 과자, 화장품 등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한다. 판매 이익금은 무농약 재배 농가의 지원금이나 지역 가로수 심기, 옥상 정원 만들기, 꿀벌 생태계* 유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 (3) 도시에서 양봉을 시작한 것은 농약의 지나친 사용과 기후 변화 및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 벌꿀 생산자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꿀벌들에겐 농약이 도시 배기가스보다 더 해롭다. 게다가 농촌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꽃을 매개할 꿀벌들이 부족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농작물 생산량은 물론 식물과 꽃의 다양성도 떨어졌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 역시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농촌에서의 꿀벌 감소 현상이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셈이다.

- (4) 그런 가운데 도시 양봉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꿀벌들이 보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주민들이 옥상과 베란다에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도심 옥상이 점차 녹색으로 변해 가고 빌딩 벽면과 베란다가 꽃으로 채워졌다. 한여름 열대야도*** 충분히 견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생겨나면서 도시 양봉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 (5) 도시 양봉은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한다. 적은 액수라도 회비를 낸 회원이라면 누구나 도시 양봉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꿀을 수확한 뒤엔 회원들에게 가족이 1년 동안 소비하고도 남을 만큼의 벌꿀을 나눠 준다고 한다. 회원들은 함께 꿀맥주 파티를 하는가 하면, ‘허니뱅크’를 만들어 그 투자금으로 도시 양봉장을 확장하기도 한다. 어떤 도시에서는 빌딩 옥상에 나무를 심는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도시 양봉이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 (6) 혹시 꿀벌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꿀벌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벌통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복만 입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 회색 도시를 녹색 도시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함께 수확한 벌꿀로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온 도시 양봉이 몇몇 도시가 아닌 지구촌 모든 도시로 확대되길 꿈꾸어 본다.

* 생태계 : 生態系

** 열섬현상 : ヒートアイランド現象

*** 열대야 : 熱帶夜

韓国語

問 1 本文の段落(1)と段落(2)を読んで、都市養蜂に関する事情として本文中から読み取れる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6

- ① 蜂蜜入りのお菓子を作り始めたのは、ソウル都心で養蜂を始めてからである。
- ② 東京銀座のビルの屋上に庭園が増えたのは、都市養蜂のおかげである。
- ③ ソウルでリンゴの木を植え始めたのは、花粉を媒介する蜜蜂が飛びかうようになってからである。
- ④ ソウル都心での養蜂事業とは異なり、東京都心での養蜂事業に対しては強い反対があった。

問 2 本文の段落(3)と段落(4)を読んだ後の感想として適当でないものを、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7

- ① 도시 양봉을 해서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게 되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을 때보다 여름철 한낮의 옥상 표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군.
- ② 빌딩 옥상에 꽃을 심고 꿀벌을 치면 농촌의 농작물 생산은 줄어들겠지만 도시 열섬현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③ 옥상 정원을 만들어 꿀벌이 날아올 수 있게 하면 한밤중의 옥상 표면 온도도 떨어지고 열대야도 줄어들겠는걸.
- ④ 빌딩 옥상이나 베란다에 꽃과 나무를 심고 양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게 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問 3 本文の段落(4)と段落(5)の小タイトル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8

- ① 도시 양봉이 가져온 효과 ② 도시 양봉이 필요한 이유
 ③ 도시 양봉과 공동체 ④ 도시 양봉과 환경 문제

問 4 本文の段落(5)から読み取れる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9

- ① 都市養蜂は, 地域社会の活性化にも大いに貢献することになった。
 ② 都市養蜂の会員でなくても, 都市養蜂場で生産された蜂蜜を購入できる。
 ③ 都市養蜂プロジェクトが活性化したことによって, 地域銀行からの投資が相次いだ。
 ④ 蜂蜜生産を拡大するためには, 障がい者の雇用を増やさなければならない。

問 5 下線部㉓と下線部㉔のそれぞれの内容として, 本文の中で示されていない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50

	㉓	㉔
①	옥상과 베란다에 꽃나무 심기	장애인 고용 확대
②	열대야 현상 극복 가능성	도시 양봉 공동체 형성
③	도시 생태계 다시 살리기	벌꿀 제품 공동 개발
④	도시 배기가스 줄이기	‘허니뱅크’ 설립 지원